

## 최근 노동시장 평가와 2007년 전망

전병유\* · 강승복\*\* · 정성미\*\*\*

### I. 머리말

2006년 우리 경제는 수출 및 설비투자 호조로 연간 성장률 5.0%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성장세는 1/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였다. 반면, 2006년 고용사정은 거시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비한다면 그렇게 개선되지는 않았다. 연초에 정부는 약 40만 명의 취업자 증가를 전망했었지만, 30만 명 수준에 그치고, 경제활동참가율도 오히려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자리창출이 양호하지 않고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고용률은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6년 고용률은 59.7% 정도로 2005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의 60.9%를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2년 이후 정체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2007년의 경우도 2006년과 전반적인 환경이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고, 기존에 지속되어 온 구조적인 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고용 지표에서의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2007년의 경우 대선이라는 정치환경의 변화와, 환율 및 유가와 관련된 불확실성, 내수경기 회복 등 2006년과는 다른 환경 변화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경제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징들은 2006년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2006년 노동시장의 주된 특징들을 살펴보고 경제상황과 경기동향을 토대로 2007년 고용상황을 전망하고자 한다.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bycheon@kli.re.kr).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위원(kangsb@kli.re.kr).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smjung@kli.re.kr).

## II. 최근 노동시장 동향 및 주요 특징

### 1. 주요 고용지표 추이 및 고용상황 개관

2006년에는 수출 및 설비투자의 호조 등으로 연간 성장률이 5.0%의 성장을 보이며 전년도에 비해 다소 견실한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6년(1~11월) 고용사정은 경기의 호조에는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뚜렷한 개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2006년(1~11월) 취업자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0.1%포인트 낮은 1.3%로, 취업자가 30만 명이 채 증가하지 못하였다. 또한 노동공급 지표인 경제활동참가율도 전년동기대비 0.2%포인트 하락한 61.9%를 보였다. 그 결과 실업률이 전년동기대비 0.3%포인트 감소한 3.5%, 고용률은 0.1%포인트 증가한 59.8%를 나타내고 있다(표 1 참조).

<표 1> 2002~2006년 고용실적

(단위 : %,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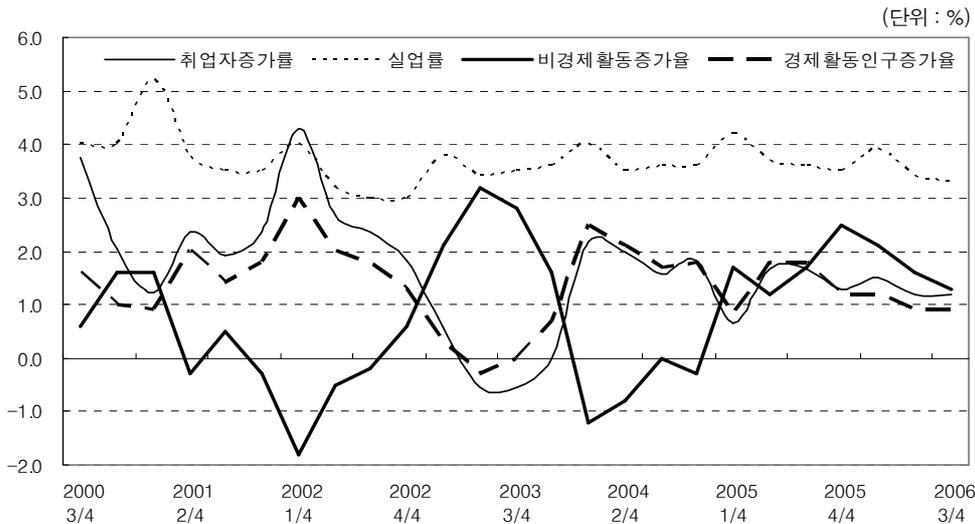
	2002	2003	2004	2005	2006 (1~11월)			
					1/4	2/4	3/4	
경제성장률	7.0	3.1	4.7	4.0	5.0 <sup>p</sup>	6.1	5.3	4.8
생산가능인구	36,963 (1.0)	37,340 (1.0)	37,717 (1.0)	38,300 (1.5)	38,749 (1.2)	38,593 (1.5)	38,730 (1.2)	38,834 (1.1)
경제활동인구	22,921 (2.0)	22,957 (0.2)	23,417 (2.0)	23,743 (1.4)	23,997 (1.0)	23,492 (1.2)	24,225 (0.9)	24,113 (0.9)
취업자	22,169	22,139	22,557	22,856	23,166	22,557	23,409	23,314
(증가율)	(2.8)	(-0.1)	(1.9)	(1.3)	(1.3)	(1.5)	(1.2)	(1.2)
(증감수)	(597)	(-30)	(418)	(299)	(295)	(330)	(283)	(289)
경제활동참가율	62.0	61.5	62.1	62.0	61.9	60.9	62.5	62.1
(남성)	(75.0)	(74.7)	(75.0)	(74.6)	(74.2)	(73.3)	(74.7)	(74.3)
(여성)	(49.8)	(49.0)	(49.9)	(50.1)	(50.3)	(49.1)	(51.0)	(50.9)
고용률	60.0	59.3	59.8	59.7	59.8	58.5	60.4	60.0
(남성)	(72.2)	(71.9)	(72.0)	(71.6)	(71.3)	(70.2)	(71.9)	(71.6)
(여성)	(48.4)	(47.4)	(48.3)	(48.4)	(48.9)	(47.4)	(49.6)	(49.0)
실업자	752	818	860	887	831	915	816	799
실업률	3.3	3.6	3.7	3.7	3.5	3.9	3.4	3.3
(남성)	(3.7)	(3.8)	(3.9)	(4.0)	(3.8)	(4.2)	(3.8)	(3.6)
(여성)	(2.8)	(3.3)	(3.4)	(3.4)	(3.0)	(3.4)	(2.8)	(2.9)
비경제활동인구	14,042	14,383	14,300	14,557	14,752	15,101	14,505	14,722
(증가율)	(-0.5)	(2.4)	(-0.6)	(1.8)	(1.6)	(2.1)	(1.6)	(1.3)

주 : p는 한국은행 전망치임.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호; 한국은행, 『2007년 경제전망』, 2006. 12.

[그림 1] 경제성장률, 실업률, 취업자증가율 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호;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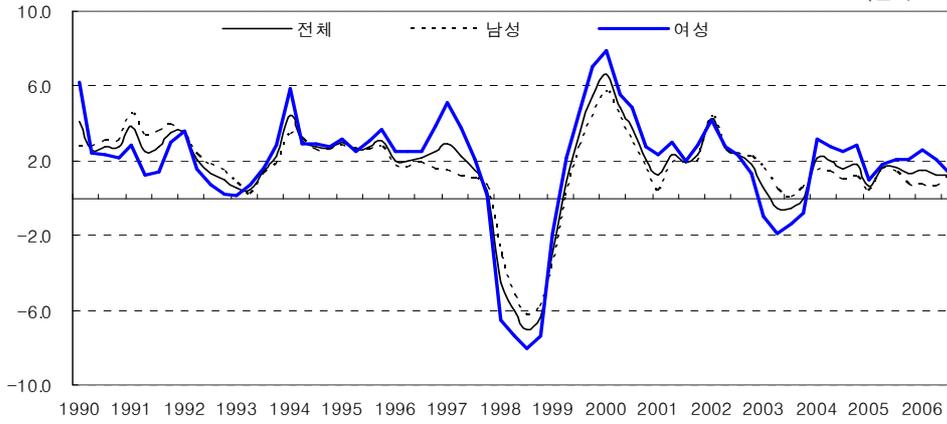
실업률이 개선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2006년(1~11월)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0.5%포인트 하락한 1.0%를 보인 반면,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전년동기와 동일한 1.6%를 나타내 노동공급이 상대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2006년의 경우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을 하회하였다(그림 1 참조).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06년(1~11월) 전년동기대비 0.2%포인트 증가한 50.3%를 기록하여 2년 연속 50%대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기대비 0.5%포인트 하락한 74.2%를 기록하였으며 이것은 2003년(74.7%) 경기침체기 때보다도 더 낮은 수준의 참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분기별 추세를 보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1/4분기에 0.3%포인트 증가한 49.1%를 기록하였고, 2/4분기와 3/4분기에는 각각 0.2%포인트, 0.1%포인트씩 증가한 51.0%, 50.9%를 기록하여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1/4분기 0.8%포인트 감소하여 73.3%를 기록하였고, 이후 2/4분기, 3/4분기에 각각 0.6%포인트 0.3%포인트 하락하여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2006년(1~11월)은 2005년에 이어 여성보다는 남성의 경우에 고용사정이 더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취업자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0.1%포인트 증가한 1.9%인 반면, 남성의 취업자증가율은 0.3%포인트 감소한 0.8%에 그쳐 여성의 고용 증가가 두드러진다(그림 2 참조). 또한 여성 고용률은 전년동기대비 0.4%포인트 증가한 48.9%를 기록했으며 2003년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 남성 고용률은 전년동기대비 0.4%포인트 감소한 71.3%를 기록하였다.

[그림 2] 성별 취업자증감률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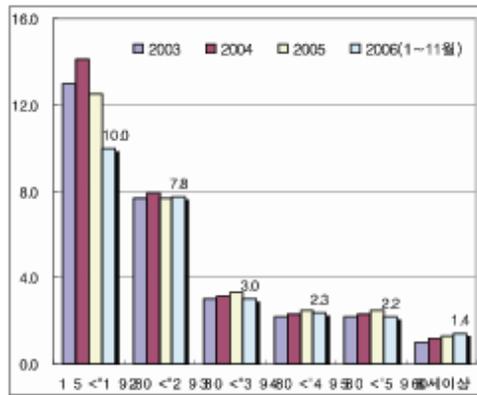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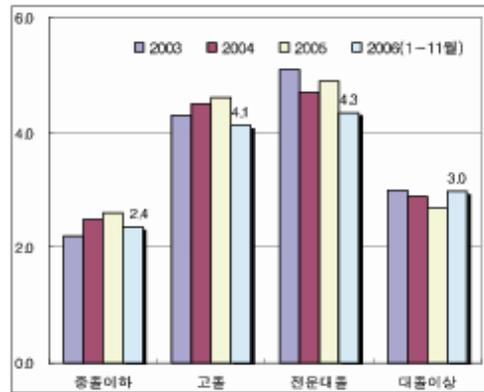
[그림 3] 연령별 및 학력별 실업률 추이

(단위 : %)

<연령별>



<학력별>



주: 2006년 1~11월 수치로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호.

연령별로는 2006년(1~11월) 30~59세에서 실업률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년층(20~29세)에서는 전년동기대비 변화가 없고, 60세 이상에서 전년동기대비 0.1%포인트 증가하여 고령층에서 실업률이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그림 3 연령별 참조).

한편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실업률이 증가(0.2%포인트)하여 고학력층의 실업률 감소추세를 반전시킨 반면, 고졸 이하 저학력층에서의 지속적인 상승세에서 고졸이 0.5%포인트, 중졸 이하가 0.3%포인트 하락하여 각각 14.1%, 2.4%를 기록하였다(그림 3 학력별 참조).

## 2. 제조업과 개인서비스업에서의 고용 감소

2006년의 경우, 우선 농림어업과 제조업 부문에서 여전히 취업자가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다. 농림어업의 경우 2005년에 예외적으로 취업자 감소가 1만 명 미만이었지만 올해도 4만 명 이상의 취업자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농림어업의 경우,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취업자 감소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제조업의 경우, 2006년에 최종적으로 약 7만 명 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2년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이라고 할 수 있다. 수출이 여전히 호조를 보이고 있음에도 제조업의 경우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2006년에 처음으로 17%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출 호조에 따른 생산과 부가가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고용 성과가 부진한 것은 아웃소싱과 외국인력 활용 증가에 기인하는 통계상의 착시 현상도 있지만,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방식이 여전히 노동이나 고숙련인력에 의존하기보다는 자본 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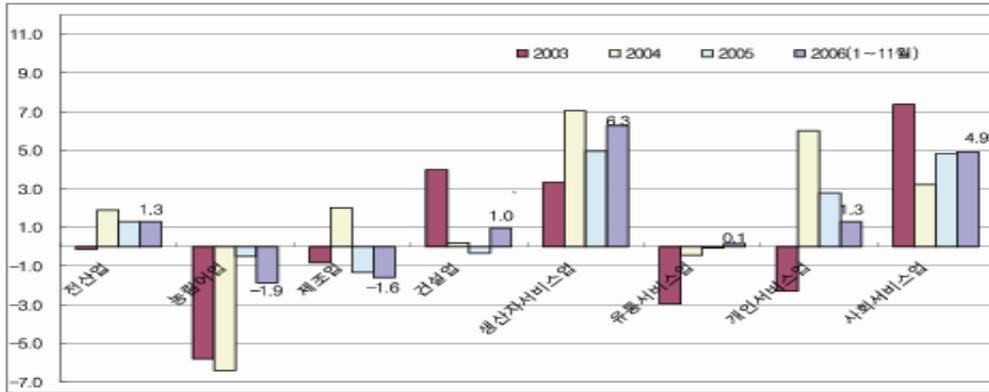
확대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즉 제조 기업들이 자신의 경쟁력의 원천을 고부가가치 인력을 활용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초하기보다는 자동화를 통한 인력절감형 투자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고용 측면에서 더욱 빠르게 서비스경제화하고 있다. 2001년에 서비스업 고용비중은 62.5% 수준에서 2006년에는 65%대 중반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추세적으로 볼 때, 서비스업 내에서도 생산자서비스와 사회서비스의 고용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개인서비스와 유통서비스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경제성장의 투입요소로서의 사업서비스업과 사회적 인프라로서의 사회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현상적으로는 서비스업의 고용구조가 선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2006년의 경우 생산자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은 여전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제조업의 고용감소를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06년의 경우에도 도소매음식숙박업을 포함하는 개인서비스업은 여전히 고용 성과가 부진하다. 이 부분은 자영업의 비중이 높은 부문으로 경기의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받는 부문이기도 하다. 2006년 초의 전망에서는 국내 내수경기가 회복되면서 이 부문의 고용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 성과가 좋아질 것으로 예측했었다. 그러나 개인서비스업 부문은 외환위기 이후 2002년까지 과잉 팽창되었던 부분이 2003년 이후 영세자영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되는 과정에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민간 내수경기가 부분적으로 회복되고 있음에도 고용은 잘 늘지 않고 있다.

[그림 4] 산업별 취업자증가율

(단위 : %, 전년대비)



주 : 1) 2006년 1~11월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 생산자서비스업(Producer services)=사업서비스업+금융업+보험업+부동산 및 임대업

3) 유통서비스업(Distributive services)=도소매업+운송업+통신업

4) 개인서비스업(Personal services)=숙박·음식업+오락·문화사업+가사서비스업+기타개인서비스업

5) 사회서비스업(Social services)=공공행정서비스업+보건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기타사회서비스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호.

### 3. 비임금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감소 추세 지속

2006년(1~11월) 고용형태별 취업동향을 살펴보면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모두 감소하였으며, 임금근로자 중 특히 상용직근로자 중심의 증가와 일용직근로자의 감소가 두드러졌다(표 2 참조). 여성 노동력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무급가족종사자는 꾸준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자영자의 경우 지난해까지의 증가를 뒤집고 올해 감소하였으며, 고용주는 2년 연속 감소하여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표 2> 종사상지위별 고용증가율 추이

(단위 : %, 전년동기대비)

	2002	2003	2004	2005	2006 (1-11월)	2006 (1-11월)		
						1/4	2/4	3/4
비임금근로자	0.9	-3.1	-0.9	0.1	-0.8	-0.4	-0.6	-1.1
고용주	4.0	0.8	3.1	-0.9	-1.8	0.1	-1.2	-3.2
자영자	1.7	-3.5	0.4	1.7	-0.1	-0.3	0.1	-0.2
무급가족	-3.5	-5.8	-8.3	-3.5	-2.0	-1.6	-2.4	-1.3
임금근로자	3.8	1.6	3.4	2.0	2.4	2.4	2.2	2.4
상용직	2.2	5.9	4.9	3.8	3.5	3.2	2.8	3.7
임시직	3.4	2.4	1.6	-0.5	1.7	1.4	1.7	2.5
일용직	9.7	-12.5	2.7	1.1	-0.4	2.0	1.1	-2.1

주 : 2006년 1~11월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호.

또한 임금근로자 가운데서는 상용근로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2005년 감소세로 전환한 임시근로자가 올해 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여 1.7%의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일용근로자의 경우 증가세를 지속하다가 2006년 3/4분기 들어 감소세로 전환되어 2006년 1~11월 평균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여 2006년 일용근로자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비임금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감소는 앞에서 언급한 개인서비스업과 건설업 등에서의 고용 성과가 좋지 못하다는 현상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2006년의 전반적으로 부진한 고용 성과는 전반적인 내수경기의 부진과 양극화의 결과로 개인서비스업에서 영세자영업을 중심으로 한 취업부진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표 3>에서 임금근로자를 고용형태별로 살펴보자. 2002년 임금근로자의 27.4%를 차지하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2004년 37.0%까지 빠르게 증가하다가 2005년 증가세를 멈춘 뒤 2006년 35.5%로 소폭 감소하였다. 근로자수로 보면 2005년 548만여 명에서 2006년 545만여 명으로 약 2만 6천 명이 감소한 것이다. 비정규직의 감소는 한시적 근로자의 감소에 기인했는데 이는 비정규직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급증해 오던 추세가 주춤해진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2/3 이상을 점하고 있는 한시적 근로자는 다른 비정규직 근로와는 다르게 정규직과 거의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며, 일정기간 동안 계약함으로써 근무하는 근로자로 2005년 이후 2년 연속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이 감소했다. 반면 시간제 근로자와 비전형근로자의 경우 각각 0.4%포인트, 0.2%포인트 증가하여 7.4%, 13.6%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임금근로자 중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비중은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6년 전년동월대비 0.8%포인트 하락한 46.3%의 비중을 나타냈다.

<표 3>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추이

(단위 : 천 명, %)

	2002	2003	2004	2005	2006
취업자	14,030	14,149	14,584	14,968	15,351
임시+일용직	7,178 (51.2)	6,913 (48.9)	6,884 (47.2)	7,043 (47.1)	7,108 (46.3)
비정규직	3,840 (27.4)	4,606 (32.6)	5,394 (37.0)	5,483 (36.6)	5,457 (35.5)
한시적 근로자	2,022 (14.8)	3,013 (21.3)	3,597 (24.7)	3,615 (24.2)	3,626 (23.6)
시간제 근로자	807 (5.9)	929 (6.6)	1,072 (7.3)	1,044 (7.0)	1,135 (7.4)
비전형 근로자	1,845 (13.0)	1,799 (12.5)	2,078 (14.0)	2,041 (13.4)	2,088 (13.6)

주: ( )안의 비중은 임금근로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자료, 원자료, 각년도.

<표 4> 취업시간별 고용비중 추이

(단위 : 천 명,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5 1~11월	2006 1~11월
전체	1~35시간	2,150 (10.1)	2,331 (10.6)	2,417 (11.1)	2,572 (11.6)	2,794 (12.4)	2,784 (12.2)	2,809 (12.1)
	36시간이상	19,196 (89.9)	19,597 (89.4)	19,438 (88.9)	19,673 (88.4)	19,730 (87.6)	20,086 (87.8)	20,356 (87.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호.

한편, 취업자의 취업시간별 고용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꾸준히 증가하던 36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가 2006년(1~11월) 12.1%로 전년동기대비 0.1%포인트 감소하여 증가세가 둔화됨을 나타내고 있다.

비경제활동비율이란, 생산가능인구에서 비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로서 노동력의 유향화 문제를 살펴볼 수 있는 부분으로 <표 5>에 나타나 있다. 전체 비경제활동률은 2003년을 제외하고 38.0%의 수준을 유지하지만 2006년(1~11월)은 전년동기대비 0.2%포인트 증가한 38.1%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을 중심으로 비경제활동비율이 감소하고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성 비경제활동비율은 200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06년은 전년동기대비 0.5%포인트 상승한 25.8%를 나타낸다. 반면 여성의 경우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비경제활동사유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쉽다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남성에서 집중되고 있으며 그 비중 또한 대단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은퇴라기보다는 실망실업 요인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 비경제활동비율 최근 추이

(단위 : 천 명, %)

		2002	2003	2004	2005	2005 (1~11월)	2006 (1~11월)
전체		38.0	38.5	38.0	38.0	37.9	38.1
성별	남성	25.0	25.3	25.0	25.4	25.3	25.8
	여성	50.2	51.0	50.1	49.9	49.8	49.7
그냥 쉽	전체	-	907 (100.0)	1,033 (100.0)	1,238 (100.0)	1,217 (100.0)	1,264 (100.0)
	남성	-	79.0	82.3	79.6	79.5	80.8
	여성	-	21.0	17.8	20.4	20.5	19.2

주 : 비경제활동률=비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1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 4. 2006년 임금상승률은 예년에 비해 안정적

2004년 이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임금상승률은 2006년에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6년 1~9월 현재 5인 이상 상용직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은 전년 동기보다 낮은 5.3%를 나타내고 있다. 10~12월을 포함한 2006년 연평균 임금상승률도 5% 중반대의 안정적인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에서 노사간 협약에 의한 임금상승률을 나타내는 협약임금인상률은 2006년 1~10월 현재 전년동기에 비하여 0.1%포인트 높은 5.0%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2007년 임금상승률은 내수 주도의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2006년보다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6> 최근 임금동향

(단위 :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1~9월	1~9월	
명목임금 상승률	8.0	5.0	11.2	9.2	6.0	6.6	6.8	5.3
협약임금 인상률	7.6	6.0	6.7	6.4	5.2	4.7	4.9	5.0

주 : 2006년 협약임금인상률은 1~10월 통계임.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및 『임금교섭타결현황』, 각년도.

2002년 이후 임금상승을 주도하던 5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체 임금상승률은 2005년 이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2006년에도 이어져 노동부, 「매월 노동통계조사」의 2006년 1~9월 누계 수치를 보면, 5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체 임금상승률은 2.2%로 나타나 5~9인의 소규모 사업체의 5.4%에 비해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500인 이상 규모와 비교한 임금격차 수준은 대부분의 규모에서 전년인 2005년보다 소폭 축소되었다.

<표 7> 규모별 임금상승률 동향

(단위 :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1~9월	1~9월	
5~9인	6.8	5.5	9.1	5.2	6.4	8.6	8.4	5.4
10~29인	8.8	7.3	6.2	6.1	7.6	7.0	6.5	4.8
30~99인	8.9	7.2	10.5	8.0	6.0	6.3	6.3	6.7
100~299인	9.8	4.2	15.8	7.9	7.1	5.4	5.9	4.5
300~499인	10.0	8.2	10.4	5.0	8.4	5.2	4.8	4.9
500인 이상	8.7	5.4	17.5	11.9	9.3	6.4	7.9	2.2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각년도.

<표 8> 규모별 임금격차(500인 이상=100.0)

(단위 :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1~9월	1~9월	
5~9인	58.0	58.1	53.9	50.7	49.3	50.4	51.8	53.4
10~29인	68.2	69.4	62.7	59.4	58.5	58.8	60.2	61.7
30~99인	71.4	72.6	68.3	65.9	63.9	63.8	65.3	68.1
100~299인	78.0	77.2	76.0	73.3	71.8	71.1	72.5	74.1
300~499인	89.9	92.3	86.7	81.3	80.7	79.7	80.6	82.6
500인 이상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각년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나타난 2006년 8월 현재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수준은 정규직 9,685원, 비정규직 6,878원으로 나타나는데, 정규직 근로자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71.0%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년인 2005년의 70.5%보다 임금격차가 소폭 축소되었다.

전년대비 시간당 임금상승률은 정규직이 2005년 5.8%에서 2006년 4.6%로 하락한 반면, 비정규직은 2005년의 1.3%에서 2006년에는 5.4%로 크게 상승하였는데, 이와 같은 원인으로 인해 2006년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격차가 축소되었다.

비정규직 임금상승률의 변화를 다시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비정규직 남성은 2005년 1.5%에서 2006년 5.4%로 3.9%포인트 상승한 반면, 비정규직 여성은 2005년 1.6%에서 2006년 5.6%로 4.0%포인트 상승하여 남녀의 수치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9>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추이

(단위 : 원/시간, %)

	2002	2003	2004	2005	2006
전체	6,572 ( - )	7,386 (12.4)	7,900 ( 7.0)	8,260 ( 4.6)	8,687 ( 5.2)
정규직	6,942 ( - )	8,139 (17.2)	8,756 ( 7.6)	9,263 ( 5.8)	9,685 ( 4.6)
비정규직	5,589 ( - )	5,824 ( 4.2)	6,440 (10.6)	6,526 ( 1.3)	6,878 ( 5.4)

주 : 1)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시간당 임금은 월평균 임금총액÷(주당 평균근로시간×4.3)으로 계산하였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표 10> 고용형태별·성별 시간당 임금추이

(단위 : 원/시간, %)

		2002	2003	2004	2005	2006
전체	남성	7,737 ( - )	8,754 (13.1)	9,273 ( 5.9)	9,761 ( 5.3)	10,223 ( 4.7)
	여성	4,904 ( - )	5,453 (11.2)	5,987 ( 9.8)	6,188 ( 3.4)	6,564 ( 6.1)
정규직	남성	8,148 ( - )	9,540 (17.1)	10,218 ( 7.1)	10,850 ( 6.2)	11,281 ( 4.0)
	여성	4,973 ( - )	5,771 (16.1)	6,306 ( 9.3)	6,596 ( 4.6)	7,002 ( 6.2)
비정규직	남성	6,396 ( - )	6,693 ( 4.6)	7,283 ( 8.8)	7,393 ( 1.5)	7,794 ( 5.4)
	여성	4,765 ( - )	4,968 ( 4.3)	5,575 (12.2)	5,663 ( 1.6)	5,977 ( 5.6)

주 : 1)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시간당 임금은 월평균 임금총액÷(주당 평균근로시간×4.3)으로 계산하였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 III. 2007년 고용전망

#### 1. 경제전망

2007년의 GDP 성장률은 2006년의 5.0%보다 낮은 4.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기간별로 보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의 경기회복 속도가 빠를 것으로 보인다. 여러 기관의 2007년 거시경제 전망을 살펴보면, 민간소비를 비롯하여 설비투자, 수출 등이 전년과 유사하거나 소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건설투자는 약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수준 및 실업률 또한 전년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11> 주요 기관의 2007년 경제전망

(단위 : %)

		경제 성장률	민간 소비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수출	수입	소비자 물가	실업률
한국은행 (2006. 12)	상반기	4.0	3.7	5.9	1.5	9.8	8.6	2.6	3.9
	하반기	4.7	4.2	6.2	1.6	11.9	13.5	2.6	3.4
	연간	4.4	4.0	6.0	1.6	10.8	11.1	2.6	3.6
KDI (2006. 10)	연간	4.3	3.8	7.0	2.3	12.3	13.2	2.8	3.7
LG경제연구소 (2006. 11)	연간	4.0	3.6	4.9	0.8	8.7	9.0	2.9	3.6
삼성경제연구소 (2006. 11)	연간	4.3	3.7	5.7	0.9	8.4	9.7	2.8	3.6
한국경제연구원 (2006. 10)	연간	3.8	3.3	5.7	0.8	8.1	7.9	2.9	3.8

주: 수출 및 수입은 통관 기준.  
자료: 개별 기관.

#### 2. 2007년 고용전망

2006년의 경제성장률이 최근 3-4년래 가장 높았음에도 고용 성과가 부진했던 것은 앞에서 검토한 대로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의 구조적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이다. 물론 2006년의 고용 성과가 부진했던 것에는 경기적인 요소도 여전히 작용하였다. 2006년의 경기가 2005년에 비해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유가와 금리, 환율 등 주요 변수들이 여전히 불확실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부동산 경기도 진폭을 거듭하면서 경제 전체에 불확실성이 가시지 않고 있어서, 경기가 부분적으로 회복되더라도 이것

이 기업의 채용 심리를 크게 바꾸어 놓지는 못하였다. 그 결과 내수경기의 회복이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데 시차가 존재하는 타임 락(time-lag) 현상이 존재하였다고 판단된다.

2007년의 노동시장에서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 취업구조의 고령화, 제조업의 고용 없는 성장, 생산자 및 사회서비스업의 고용창출 지속, 개인서비스업 및 자영업 취업 성과 부진 등의 특징들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고용 성과에서도 2006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수요는 경제성장의 파생수요이기 때문에 경제성장의 추이나 형태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이 부분적으로 고용 성과를 개선할 수는 있을 것이다. 2007년의 경우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경기와 정부의 고용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우선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에 따르면, 2007년의 경제성장률이 2006년보다는 낮지만 2005년보다는 높은 약 4.4%가 전망되고 있으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의 경제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는 노동수요가 다소 위축되었으나 하반기 들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 수준이 전반적으로 2006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개선되는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 창출, 즉 취업자 증가는 약 30만2천 명, 취업자증가율 1.3%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활동참가율이 소폭이나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것은, 인구 및 취업구조의 고령화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요인이 있지만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전반적인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로 인해 취업자뿐만 아니라 실업자도 약간 증가하여, 2007년의 실업률은 2006년의 3.6%에 비하여 0.1%포인트 상승한 3.7% 정도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2006년에 비해서 좋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에도 노동

<표 12> 2007년 주요 고용지표 전망

(단위: 천 명, %)

	2006p			2007p		
		상반기	하반기p		상반기p	하반기p
경제성장률	5.0	5.7	4.4	4.4	4.0	4.7
생산가능인구	38,757 (1.2)	38,661 (1.4)	38,852 (1.0)	39,144 (1.0)	39,048 (1.0)	39,241 (1.0)
경제활동인구	24,008 (1.1)	23,858 (1.0)	24,157 (1.2)	24,351 (1.4)	24,185 (1.4)	24,517 (1.5)
참가율	61.9	61.7	62.2	62.2	61.9	62.5
취업자 (증가율) (증감수)	23,152 (1.3) (296)	22,993 (1.4) (307)	23,312 (1.2) (286)	23,455 (1.3) (303)	23,284 (1.3) (291)	23,626 (1.3) (314)
고용률	59.7	59.5	60.0	59.9	59.6	60.2
실업자	855	865	845	896	901	891
실업률	3.6	3.6	3.5	3.7	3.7	3.6

주: p는 전망치임.

시장 성과가 크게 나빠지지 않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실물경제 상황은 노동시장에 대해 시차(time-lag)를 두고 파급되기 때문에 2007년의 경기 위축이 곧바로 노동시장 위축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원화 가치 절상이나 유가 안정 등으로 수출보다 상대적으로 내수부문의 성장이 양호할 것으로 보이고, 내수부문이 상대적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동일한 경제성장률이라고 하더라도 고용 성과는 더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도 고용 성과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된다.

<부표 1> 산업별 취업동향

(단위 : %, 천 명)

	2002	2003	2004	2005	2006 (1~11월)
전 산업	2.8 (597)	-0.1 (-30)	1.9 (418)	1.3 (299)	1.3 (295)
농림어업	-3.7 (-79)	-5.8 (-119)	-6.4 (-125)	-0.5 (-9)	-1.9 (-35)
광업	-0.9 (0)	-4.2 (-1)	-6.5 (-1)	8.2 (1)	2.9 (0)
제조업	-0.6 (-26)	-0.9 (-36)	2.0 (85)	-1.3 (-56)	-1.6 (-67)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10.1 (-6)	44.9 (24)	-4.8 (-4)	-1.7 (-1)	6.4 (5)
건설업	10.2 (161)	4.0 (69)	0.2 (4)	-0.3 (-5)	1.0 (18)
도매 및 소매업	1.5 (60)	-3.0 (-120)	-1.7 (-66)	-1.5 (-57)	-0.9 (-34)
숙박 및 음식점업	3.3 (64)	-1.3 (-25)	3.8 (76)	0.0 (1)	-0.4 (-8)
운수업	2.3 (26)	-4.9 (-55)	4.0 (43)	1.9 (22)	0.9 (10)
통신업	11.1 (23)	7.6 (18)	-0.2 (-1)	12.5 (31)	11.0 (30)
금융 및 보험업	-3.4 (-26)	2.3 (17)	-1.7 (-13)	1.0 (8)	5.8 (43)
부동산 및 임대업	8.5 (32)	2.6 (11)	7.0 (30)	9.8 (44)	1.0 (5)
사업서비스업	8.9 (102)	4.2 (53)	12.1 (158)	5.4 (79)	8.1 (12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0.1 (1)	7.8 (55)	1.5 (11)	3.0 (23)	1.7 (14)
교육서비스업	8.0 (99)	11.2 (149)	1.5 (23)	4.1 (62)	6.0 (9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3.8 (67)	-2.1 (-12)	10.2 (55)	8.9 (53)	6.2 (40)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6.4 (25)	1.6 (7)	7.8 (33)	9.3 (43)	-0.4 (-2)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6.5 (64)	-4.2 (-44)	17.5 (174)	4.9 (57)	4.2 (52)
가사서비스업	4.5 (9)	-10.7 (-23)	-35.1 (-67)	4.1 (5)	6.2 (8)
국제 및 외국기관	17.0 (3)	22.4 (4)	8.6 (2)	-1.2 (0)	-17.4 (-4)

주: ( )안은 취업자 증감인원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호.

<부표 2> 고용전망 모형 추정결과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수(로그값)
상수항	65.217( 5.14)***	-113.479(-0.35)
전년 동분기값	-0.083(-0.39)	1.003(70.46)***
경제성장률	0.081( 2.03)*	76.453( 9.77)***
시간항	0.031( 2.82)**	
IMF 가변수		-734.832(-7.35)***
1/4분기 가변수	-1.824(-4.66)***	48.503( 0.79)
3/4분기 가변수	-0.376(-2.17)**	-28.659(-0.48)
4/4분기 가변수	-0.521(-2.78)**	13.926( 0.23)
adj. R <sup>2</sup>	0.830	0.989

주: 1) ( )안의 수치는 t값.

2) \*\*\*, \*\*, \*는 각각 유의수준 1%, 5%, 10%임.

3) 분석자료는 1989년 1/4분기부터 2006년 3/4분기 실적치.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호;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호.